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초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세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운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517-7651-5 팩스 (02)512-1225 <http://seoulchurch.or.kr>

평생교육과 노후생활의 기쁨을 위한

살롬 경로대학 9월 21일 개강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의 7%가 넘는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었다.

서울교회는 새 예배당 시대를 앞두고 평생교육 기관인 노인대학을 설립하여 기능 및 역할 상실에서 오는 노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시대적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취미교실을 설치하여 노년의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삶의 변화를 꾀하고 자아실현을 하여 풍요로운 생활이 되게 하고자

한다.

제 1학기 개강은 9월 21일(목)부터 11월 23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경건회, 교양강좌, 특별활동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교양강좌는 개강예배에 이어 기독교내세관(이종운 목사), 하나님의 주권사상과 한국현대사의 해석(김상철 박사), 이스라엘의 자녀교육(정호진 박사), 남북대화과 통일의 길(이병생 장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스트레스와 노인건강(이운진 박사)과 레크레이션, 건강체조, 영화상영, 성지순례 등이며 특별활동반으로는 성경교실,

노래교실, 서예교실, 체조교실 등 4개교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조직은 학장 이종운 목사, 부학장 임광식 장로, 지도교역자 이성득 목사, 학감 왕경래 장로, 총무과장 박두영 집사, 교무과장 이재운 집사, 봉사과장 김상옥 집사, 교사 및 여전도회 회원이다.

학기중 점심과 단체여행이 제공되며 입학지원서 및 신입생 모집요강은 사무국에서 배부하고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과 성원속에서 열릴 살롬 경로대학을 기대해 본다.

평생어린 건축헌금 · 바자 하나님께 바쳐지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91년도 11월에 우리교회 창립이래 건축헌금을 5번째 지난 9월 3일 주일에 바쳤다. 또한 93년 11월에 청년부 주최 모음과 나눔의 장을 시작으로 해마다 열린 바자는 올해로 9번째였다.

일만원에서 십억원에 이르기까지 헌금한 이들이 다양한가 하면 밀가루 부침부터 일천만원(미술품) 고가품이 팔리면서 서울교회 새 예배당은 쑥쑥 올라가고 있다.

새 예배당 강대상, 음향시설 일체, 주방기구 일체를 헌납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165만 독일 마르크(한화 약 8억5천만원) 상당의 파이프 오르겐을 바친 성도도 있다.

93년 12월 26일 일차 건축헌금을 한 이후 95년 11월, 98년 10월 그리고 99년 10월에 각각 대지와 건축을 위한 헌금을 마쳤다.

입당을 눈앞에 두고 지금까지 헌금한 이들의 이름을 새 예배당에 동판으로 새겨 후대에 기리고자 오늘 별지와 같이 헌금자 명단을 공개한다.

건축헌금은 했으나 명단에 누락되거나 오자로 발표된 이들은 사무국에 수정을 요하면 된다.

새 전자오르겐 입하

- 최첨단 4단 78스톱 -

화란의 요한누스 오르겐 회사가 제작한 전자 오르겐이 우리교회 새 예배당에 설치된다. 지난주 기독교 방송국 주최 교회용품 전시회 출품을 위해 입하된 요한누스 오르겐이 전시회가 끝나면서 우리 교회에 납품된 것이다.

현재 독일 Klais 오르겐 회사에 주문 제작중인 파이프 오르겐이 설치되려면 앞으로 3년을 기다려야 한다.

... * ...

서울교회에 설치될 최첨단

Monarke 전자 오르겐의 특성

네덜란드 파이프 오르겐 회사인 요한누스사가 제작한 Monarke-4000 오르겐은 4단 78 Stops 24 독립 channel로 엠프 24개 스피커통 24개 스피커 Driver 100개로 파이프 5600개가 되는 파이프 오르겐 규모와 동일한 소리를 내는 거대한 악기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성경 : 이사야 40장 6 ~ 11절



이종운 목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네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위로의 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은 인간은 풀과 같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습니다.

1. 하나님 약속의 확실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질 구원 사역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육체나 이 세상 영광으로 성립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전 3:11),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시켜 주시는데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올 새로운 세계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하는 자'는 누구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2절에서는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했으며, 6절에서도 외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7-8절).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4)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대적하거나 막을 수 없고 또 그 구원을 풀과 같은 인생에게 의지하

지도 말라고 합니다.

2.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해방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 해방의 소식이 아름다운 것이니 만큼 높은 곳에서 힘써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성읍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9절)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사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복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임재 하실 것이고 능력을 갖고 오시되 상급과 보용이 그 앞에 있을 것입니다.

(1) 하나님은 왕의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오신다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10절)

강한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충분하시어 무장을 강하게 한 사단을 이기시는 강한 자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구속 과정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상과 사악과 이기심 등을 떨치고 제거하시며 죄와 허물을 씻어버리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세우주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용이 그의 앞에 있으며"(10절)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복음이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상급으로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소식, 곧 복음을 선지자에게 시에 올라가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 하나님은 목자같이 오신다

"그는 목자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11절).

목자는 양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지상의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봐주는 일에 있어서 사랑은 필수적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참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양을 보살피는 일은 실패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사랑과 신실성과 인내와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인간 된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개념과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십니다(11절). 그들에게 푸른 초장을 주시어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사 49:10).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양은 한 마리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린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해칠 사자가 없고 하나님의 양떼를 향해 달릴 야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주어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쫓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 떼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시 23:2), 좋은 풀로 먹이십니다(겔 34:14). 주님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요 6:48).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광야에서 주신 만나보다 더 귀한 생명떡 되시는 주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을 먹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영혼의 감독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인도함을 받으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보도록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전도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므로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전도와 간증과 고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석,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이번 주간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라 불리우는 추석을 맞게 된다.

결실을 감사하며 모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일이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의 문제이다.

조상숭배 제도는 12세기 중국의 주희가 만든 성리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유교 철학에서 온 외래문화의 유산이며, 철학적으로 보면 과거지향적인 순환적 시간관에 기인된 것이므로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평민을 다스리기 위한 사회 정치적 산물이었다. 그러니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라는 말은 오도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해 바른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 모범을 제시한다.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묵도	다	함	께
성시	살전 5:16~18	인	도
찬송	307장	다	함
기도(또는 사도신경)		가족중(다함께)	
성경봉독	엡 3:20~21	인	도
메시지	"영광의 찬가"	인	도
찬송	460장	다	함
주기도문		다	함

*

메시지

"영광의 찬가"

우리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베소서 3장 20~2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365일이 모두 감사의 날이 되겠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한 감사의 날입니다.

감사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결실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광의 송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곧 성도의 무리 가운데 지금도 계셔서 역사 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으며 백성으로 부르시사 다스리시고, 2000년의 지난 8개월간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선물이 무엇인가보다는 선물

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가 선물의 가치를 결정 짓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창조주이니 그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할 때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할 것이며 약소한 선물이라도 기뻐하고, 지극히 작은 축복이라도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에 혹 고통이 따르더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2.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은혜의 가치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헌되이 받지 말라"고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나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 없다면 은혜를 소홀히 여긴 결과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간 기도의 은총을 잘 활용했나요?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회개하여 거듭난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둘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약4:4)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것,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릅시다.

3. 구한 것보다 더 풍성히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와 존영을 당대에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구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보에서 메시야가 나오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예기치 못한 과분한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면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에게 베푸신 영광은 그가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큰 것이어서 다윗은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란데..."라고 감탄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어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만 국한된 은혜이겠습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와 민족 위에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복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 충분한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본래 빈 손으로 이 세상에 왔음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비교의식과 상대적인 생각 때문에 가난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아무 것도 가질 자격이 없었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엡 2:1)를 부활의 능력으로 노라온 은혜로 후대하셨습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시116:7).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아니 할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다운 뜻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고향가는 길이 전도여행

오광환 집사(12교구)

우리집안은 모두 수도 권에 거주하고 있어 명절 때는 오히려 넓은 도로에 막힘없이 편안히 모여 대소가 모두가 정담을 나누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린다. 명절에 우리집안의 가장 큰 행사는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오랫만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린 조카에 이르기까지 스무명이 넘는 대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고 흠뻑 젖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식구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식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금년 추석은 상황이 다르다. 그동안 TV로만 보던 귀경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다. 지리적으로 멀다는 핑계로 좀처럼 찾아 뵙지 못했던 처가댁을 찾아 추석을 지내기로 했다. 연로하신 장모님과 그 식구들... 그러나 한가지 걱정이 앞섰다. 장모님을 제외하고 처남댁 식구 대부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추석날 아침 그곳에서도 가족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큰 처남댁은 돌아가신 조상께 제사를 드리려 할 것

이다. 한동안 고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던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인 사위로서 모든 식구에게 먼저 마음문을 열고 포용하며 그들에게 다가 가기로 했다. 제일 어른이신 장모님과 먼저 믿는 자들이 솔선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가족들에게 권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모든 식구들에게 행동으로 전도하여 조카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이번 추석은 그리운 부모형제를 만나보기 위한 귀향길 이기보다 아직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전도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며, 영원히 격정근심 없는 하늘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잊지못할 서울교회여!

류석경(상리교회)

저는 백두대간 한 줄기인 태백산을 지나 소백산 밑 이주 오지이면서 작은 면인 상리면 노인회장 류석경입니다.

서울교회에서 여름 봉사활동의 고마운 뜻을 전달하고자 필을 들었습니다. 온 상리면 민이 고맙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도 친절하고 면민을 사랑하고 상세한 성경과 대화에 감동 되었으며 봉사활동도 질서있게 면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의료봉사, 이·미용 등 다양한 프로로 추진하여 면민들이 모두 좋아하고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들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의료봉사에 있어서 노령에 계시는 분들이 농촌에서 힘든 농사일을 하다 보니 퇴행성 관절염과 신경통이 많은데 침술과 뜸의 효과는 더욱 효과가 있었고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상리면 노인회관에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말씀 드렸더니만 爻子床 8개와 진공청소

기 1대를 보내주셔서 더욱 더 고맙습니다.

주신 라면으로는 우리 회원들이 모여서 점심과 간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8월 23일에는 상리면 노인회 임원인 20명이 모여서 기증품을 소개하고 서울교회와 상리교회에 고맙다고들 하시면서 귀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도 하였습니다.

병자의 면민들이 무식해서 고마운 뜻을 전할 줄도 모르고 주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면민을 대표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면민회합과 면의 발전 개인적으로는 많은 배움의 혜택으로 교양을 쌓아가며 힘껏, 양심껏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약속하고 시간이 있으면 교회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교회는 날로 번창하시고 신도님들께서는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 8월 25일

■ 동정 ■

- 한현숙 집사 (2교구)
듀오 피아노 연주(서울 심포니와 협연)
• 일시: 9월 14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윤문자 권사, 김태기 장로 가정

☑ 건축현장 방문팀

: 제 2 권사회-11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작정한 건축현금 잘 바치고, 더 많이 바칠 수 있도록
3.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4. 가정과 민족사회가 평안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